

정수복의 '응답하는 사회학'



금수저와 흙수저의 사회학적 의미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가치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한 불평등을 정당화한 것으로 루저를 면하기 어려운 현실을 은유적으로 정당화될 것이다.

증여를 받지 않으면 집을 사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수저론'이 널리 퍼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를 '지리적 이동'이라고 한다면 사회 계급이나 사회계층 사이에 일어나는 이동을 '사회 이동'이라고 부른다. 일상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못살다가 잘살게 되거나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는 산업화와 도시화, 정보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수많은 사회 이동이 발생했다. 가족마다 3세대 이상의 삶이 면면히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과 생활수준도 대체로 상승해왔다.

대다수의 할아버지들은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이었지만 '베이비 붐' 세대로 불리는 그들의 자식들은 농촌에서 태어나 광주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이주하여 노동자·회사원·공무원·자영업자가 되었다. 베이비 붐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공부했고 힘들게나마 재산을 형성해 자기 집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그들은 빈곤을 체험했던 아버지 세대에 비해 물질적으로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되었다.

이들 베이비 붐 세대의 자식들인 신세대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대학 교육까지 받은 말끔하고 말짱한 '도시의 아이들'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버지 세대가 누렸던 고단하지만 풍부했던 일자리가 사라졌다. 입시에 시달리면서 도 스펙에 열을 올렸지만 그들의 꿈은 이제 어디에도 '정규직'을 차지하는 것으로 줄어들었다.

베이비 붐 세대가 부모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면 신세대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들은 부모들의 지지와 격려, 안달과 복달 속에서 대학 교육을 마쳤으나 직장을 잡을 수 없어 알바와 비정규직 사이를 오가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는 성장의 화살표가 위로 향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제 성장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하강 이동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그런 과정에서 자유와 소비사회의 맛을 보았지만 경제적으로 부모에 의존하고 있는 젊은 세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선은 '힘들어 공부시켰는데 저 모양 저 꼴'이라는 부모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가

난한 부모들은 자식의 봉양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물질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일상의 생활 방식과 장기적 삶의 전망에서 부모와 자식 세대의 차이가 워낙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갈등 해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는 가난의 시대에 태어나 사회적 상승 이동을 경험한 부모 세대와 풍요의 시대에 태어나 물질적 어려움 없이 자랐지만 하강 이동을 경험하게 될 세대 사이의 갈등과 분열, 대화와 타협의 역사가 될 것이다.

사회 전체의 역사와 가족의 역사 그리고 개인의 삶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맺으며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조세와 복지 정책을 통해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각지는 내가 사는 모습을 전체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런 다음 10년, 20년, 30년 뒤 나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무슨 대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사회학자·작가)

社說

새누리, 비례대표 공천마저 호남 외면하나

4·13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 갈등으로 거취 문제까지 심각하게 고민했던 김 Jong인 더불어민주당 비대표가 어제 당 잔류를 밝혔다. 동시에 당 비례대표 2번을 수용키로 해 파국 직전의 더민주는 가까스로 위기를 면했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으로 촉발된 더민주의 내홍은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김 대표와 당내 친노 주류 세력 간 알력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휴화산 상태라는 견해가 많다.

더민주 비례대표 공천이 잠복해 있던 친노 패권주의를 드러냈다면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에서는 호남 소외 문제가 불거졌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45명의 면면을 보면 20대 총선을 앞두고 호남 외연 확대는커녕 호남 인사를 철저히 배제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호남 출신은 가뭇에 콩 나듯 불과 몇 명의 이름만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두 고향을 떠난 이들이며 30여 명의 광주·전남·북 거주 신청자 중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당선권 이내에 든 호남 출신은 청년 몫의 7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신보라(여), 그리고 14번 조준현(연암) 프로그래머, 서울 양지병원 원장인 18번 김철수(김제) 전 새누리당 재정위원장 등 3명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누리당 국민공천 배심위원조차 호남 출신이 부족하다며 재검토를 주문했을 정도다. 이대로 공천이 마무리되면 지역과 집권 여당의 소통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에서는 지난해 광주 서구를 보선에 출마했던 정 승 전 식약처장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을 지켜 온 인물을 안정권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비례대표는 고질적인 지역주의 정치의 폐해를 보완하고, 다양한 직능단체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다. 새누리당은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기 전에 인선을 재조정해 원래의 비례대표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할 것이다.

광주시,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 서둘러야

광주시의 의료관광 인프라가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관광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과 인원이 없는 데다 지원 근거가 될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의료관광을 위한 전담 조직과 전담 인원을 갖추지 않은 곳은 광주시가 유일하다. 대구의 경우 2개 팀(의료관광 팀·의료서비스 팀) 10명, 부산 2개 팀 8명, 대전 1개 팀 4명이 의료관광 사업을 맡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또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나 의료관광 사업 단 등 전담기관도 갖춰져 있지 않다. 무엇보다 의료관광 인프라를 지원할 근거인 조례도 광주만 찾아볼 수 없다. 2009년 조례를 제정한 부산과 2011년 이양된 대구·인천·대전과 비교하면 5년 이상 뒤처진 상태다.

문제는 미흡한 의료관광 인프라가 저조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광주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전국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 28만 명 가운데 광주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환자는 2000명에 그쳤다. 이에 반해 부산은 2014년 1만 3717명, 인천 1만7701명, 대구 9871명으로 광주보다 3배~7배 이상 많았다.

의료관광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현금일 산업이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1인당 평균 지출액이 382만 원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광주는 전남대병원 등 우수한 의료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인프라만 뒷받침된다면 호남권의 의료 허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하루빨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오줌싸개



김혜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과장

5%, 60대 16.2%, 70대 15.3% 순이었다. 이 기간에 다뇨증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9세 이하의 어린이는 2008년 4981명에서 2011년 6554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에 다뇨증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9세 이하의 어린이는 2008년 4981명에서 2011년 6554명으로 늘었다. 또 여아보다는 남아가 많았다. 어린이들은 방광기능이 미성숙하고 조절능력이 떨어져 있어 주간 빈뇨나 야간뇨가 증가할 수 있다. 어린 아이들에게 학업 부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자율신경계가 자극을 받아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되고 이로 인해 어린이들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다뇨증은 하루 배뇨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태(40cc이상/kg)를 의미하며, 밤에 오줌을 싸는 야간뇨와 주간 빈뇨 등이 포함된다. 5세가 넘어도 밤에 오줌을 싸면 야뇨증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5세 소아의 약 15%가 야뇨증을 앓고 있다.

대개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기 이후에는 약 1%에

서만 야뇨증을 가지고 있다. 야뇨증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아직 방광의 기능이 성숙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낮 시간에도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지리는 경우가 많다. 둘째, 낮 시간에 비해 밤 동안 생성되는 소변의 양이 많아서다. 셋째, 수면 중 각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일어나게 되는 데, 야뇨증이 있는 어린이는 누가 업어 가도 모를 정도로 잠에서 깨지 못한다. 여기에 더해 정서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 동생이 생겼든지, 새로 이사간 후 소변을 가리던 아이가 밤에 오줌을 싸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외에도 유전적인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즉 부모가 야뇨증이 있었다면 아이 역시 있을 수 있다.

다뇨증으로 진단되면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 야뇨증이 어린이의 성격 형성이나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야뇨증은 어린이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여름캠프, 야영 등과 같은 교외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이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자아를 발달시키는 시기에 발생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 어린이들은 야뇨증이나 주간 빈뇨도, 방광기능 체크 등을 통해 요양 증가 때문인지, 방광의 용적감소로 인한 배뇨곤란과 활동성이 문제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주로 병력청취, 문진, 요검사, 요배양 검사 등 간단한 방법으로 진단하게 된다. 요 검사 시 요감염이 있는 경우, 주간 배뇨 증상이 심한 경우, 이차성 야뇨증, 유분증, 약한 요류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일단 자기 전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게 좋다. 취침 2~3시간 전에는 과일이나 물, 음료수를 삼가고 저녁식사로 가능한 이른 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 또 자극적 음식을 피하고 고칼슘, 고염식도 야뇨증을 악화시키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주간 빈뇨가 심해 화장실을 자주 가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다른 동반질환이 없다는 소변을 참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음식으로는 검은 참깨, 검은 콩, 미역, 다시마, 김 등이 야뇨증에 도움이 된다. 또 오미자는 수렴작용으로 소변을 방광에 잘 담아두게 해 주는 효능이 있다.

기고



장현서 광주전남지방방무청장

병무청·교육청·군 협업으로 안보의식 키운다

을 제공하기 위한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이 현재의 협업은 고객들의 의식 수준의 발전과 함께 성장, 효과적인 과정과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병무청에서도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높아진 국민의 의식 수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지난 16일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산업사회와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체계적인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전문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인성·안보교육의 체계적인 기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광주시교육청, 학교(금호중앙여고·대성여중·문성중), 군부대(육군 제705 특공연대·육군 제1512부대·해병대 연평부대), 광주전남지방방무청 등 총 8

개 기관이 뜻을 같이 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기관의 학생들이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협약한 군 부대에 전달해 답장을 주고 받는 것이다. 지속적인 감사편지 교류는 학생들의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매년 4~5월 병무청이 공모하는 '어린이 나라 사랑 그림·글짓기 대회' 수상 작품을 희망하는 학교나 군 부대에 전시하고 있다. 미래 병역의무자들에게는 병역과 안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로,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게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와 관련, 학생들이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병무 강화, 징병검사장 견학 등 병무청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병무청, 교육청, 군부대 등 전문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은 미래 병역의무자인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통한 안보의식 고취와 병역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교육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 가운데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시 휴가를 반납하고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가 소속된 해병대 연평부대와 서 하사의 모교인 광주문성중학교가 포함된 협업의 의미를 높이고 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급박하다. 북한의 위협이 끊이지 않아 불안한 상황이다. 안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기에 국가안보의 초석인 병역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지고 있다.

병무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역의 근간이 되는 미래 병역의무자인 학생들의 올바른 안보의식 성장을 도와 국가안보의 기틀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이 행복한 신 병역문화 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無等鼓

겨울 끝자락이면 라디오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다. 포크 가수 박인희가 부르는 '봄이 오는 길'이다. "산 넘어 초목이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가사를 음미하다 보면 '조붓한(조금 좁은 듯하다) 오솔길'을 거쳐 희미하게 오는 봄이 느껴진다. 움츠렸던 마음까지 따뜻해지고 희망이 차오른다. 그녀에게 매료돼 카세트 테이프를 샀고, 아직 노래모집 CD와 LP 3장을 무슨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기억이 맞다면 박인희에 대한 가장 매력적인 묘사는 작고한 DJ 박승환 씨의

봄이 오는 길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듯한 목소리를 가졌다." 실제로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채로 걸러 낸 듯한 맑은 감정이 솟아난다. 박인희가 부른 노래에는 시대의 모습도 담겨 있다. 특히 '모닥불'이라는 노래에서는 모닥불 피우고 둘러앉아 통기타를 치며 합창하는 70년대 대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흔히 '어휴 저 꼴대'라고 신세대들에게 욕을 먹는 중장년들이 그 낭만적인 노래의 주인공들이다. 모더니즘 시인으로 불리는 박인희의 대표작 '모닥과 속녀'도 박인희 덕분

에 쓸 수 있었다. 그녀가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낭송하는 '모닥과 속녀'는 풍환적이고 퇴폐적인 느낌을 준다. 대형(茶兄) 김현승 선생이 '모닥과 속녀'를 두고 시다운 구절은 '누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밖에 없다고 혹평했어도 내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로 남아 있다. 박인희의 또 다른 시 '세월이 가면'을 박인희가 노래했을 때는 혹시 두 사람이 오누이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박인희의 노래는 요즘 목에 핏줄이 서도록 '악을 쓰는' 가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지가 있다.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이의 감성까지 미치는 '딱한 노래'와 결이 다른 세계다. 요즘 가수들에게 갈채를 보내는 팬들에게는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가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수 중 딱 한 명이 바로 박인희 아닐까 싶다.

71세가 된 그녀가 35년 만에 가요계에 복귀한다. 아직 기억하는 팬들 때문에 가요계에 돌아온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순회공연을 연다는데 광주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윤영기 문화미디어부장 panfoot@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부 220-0642	사 진 부 220-0693	*우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